

미국, Epoxy 고전 계속되나...

수익성 제로에 공장운영 난항 ... 2003년 수요전망 “혼돈상태”

2002년 미국 Epoxy Resin 시장에서 고전했던 미국 생산기업들은 2003년에도 혼란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도제품 시장이 2002년 소폭의 강세를 보였으나 2001년부터 난항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Epoxy 수요는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 및 북미에서는 저조하거나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Resolution Performance Products LLC에 따르면, 2002년 Epoxy 시장은 2001년 전례 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은 이후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으며 세계 전자화학 시장은 2001년 이후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

Epoxy는 건축용 페인트 부문에서도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poxy는 공업용·보수용 도료의 역할은 크나 비중이 확대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및 포장용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나타냈다.

2002년 미국의 Epoxy 수요는 전년대비 1-2% 감소했으며, 유럽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전자화학 부문이 부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수요가 일정량 증가했다.

시장상황은 2003년 상반기부터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2004년에는 산업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서 또다시 증가율이 GDP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ow Chemical에 따르면, 2002년 Epoxy레진을 응용한 도료 생산은 증가한 반면 전자제품은 1990년 후반 기술 거품이 사라지고 전자제품 생산이 중국으로 대량 옮겨감에 따라 약세로 돌아섰다.

전자산업 분야에서 Epoxy 시장은 18-20%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Epoxy 레진 사용율은 50%로 곤두박질쳤다. Epoxy 활용 전자화학 시장은 북미와 유럽에서 급감했으나 아시아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다.

페인트 시장도 2002년 약간의 경기 후퇴를 겪었으나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자동차 생산량은 여전히 높았으며 중유 및 가스 파이프에 쓰이는 기능성 도료도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 Epoxy Resin 수요증가율은 4.5%에서 5%로 전망되고 있다. 평균증가율은 미국과 같은 선진경제에서는 GDP 수준에 그쳤지만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solution은, Bisphenol-A가 2002년 PC(Polycarbonate)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10% 안팎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CH(Epichlorohydrin) 수요는 수처리 레진과 같은 비 Epoxy 부문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ECH 공장은 최적 가동을 계속하기 힘든 상황이며 2002년에는 가동중지로 일부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미국의 ECH의 평균시세는 2002년 톤당 1500달러이며 아시아에서는 1100달러, 유럽에서는 1000-1300달러로 매우 낮았다.

Dow Chemical은 ECH의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 2002년 5월 텍사스주 Freeport 소재 No.1 10만톤 플랜트의 가동을 중단했으나 현재는 다시 가동하고 있다. Dow는 수익성이 하락하면 No.2 10만톤 플랜트의 가동도 마찬가지로 감축할 계획이다.